

전쟁' 대기업도 '현금 확보' 총력전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자금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까지 찾아가 '현금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외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주요 재벌 그룹 계열사에도 속하지 않는 중견 대기업들은 은행과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부도에 직면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은행권과 증권업계, 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대기업의 업황 전망 기업경기 실적지수(BSI)는 11월에

차입금 59% 급증 ... 살아남기 몸부림 은행 외면에 저축은행 찾아 급전 구해

68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의 81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월별로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기별 자료까지 감안하면 98년 4분기의 55 이후 가장 낮다.

대기업 자금사정 BSI는 지난 10월에 75로 전월의 81에 비해 6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월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저다.

경기악화에 따라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대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재계 전문사이트인 재발닷컴이 30대그룹 계열 16개 상장기

업(금융회사 제외)의 차입금을 조사한 결과 9월말 현재 49조6천25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장기차입금은 7.1% 줄어든 반면 단기차입금이 무려 381.9%나 증가했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도 장기차입금은 15.8% 감소했으나 단기차입금은 154.3%나 늘었다.

주요 그룹들의 부채비율도 올라갔다. 한진그룹이 지난해 9월말 183.1%에서 올해 같은 시기에 304.8%로 뛰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동부(264.9%), 동양(263.2%), 현대(262.9%), 두산(251.9%) 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다.

대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거절당하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찾아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건설회사 이외에 중견 대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을 찾고 있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한 업체는 저축은행에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확보에도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일부 대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휘말리는 등 대기업 업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채권안정 펀드 5조 지원

韓銀, 금융기관 출자금액 50% 공급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채권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에 최대 5조원, 출자금액의 5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산업은행·시중은행·보험·증권사 등 참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 직매입이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해주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 5조원이라고 밝힌 것은 펀드가 조성하는 전체 규모에 따라 금융기관 출자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50% 지원은 시장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민간펀드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자금 조성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등이 출자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 뒤 회사채와 은행채, 할부금융채, 카드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을 인수할 계획이다.

C&중공업 워크아웃 추진

우리은행 '경영정상화 계획서 검토 중'

채권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C&중공업의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최근 이 회사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연계는 C&우방의 매각을 위한 일할 예정인 26일을 전후해 C&중공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C&중공업이 자발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단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75%가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채무상환 유예와 부채 탕감 등 지원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보물 압류와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C&중공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약 1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각 채권에 대해 상당부분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C&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채권 회수에 차질을 빚게 된다.

C&그룹은 최근 10년간의 해운업 활황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세를 확장했다.

창업주인 임병석 회장이 1990년 자본금 5천여만원으로 설립한 칠산해운을 모태로 하고 있는 C&그룹은 해운사업 호조를 기반으로 배선과 건설·조선 등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그룹체계를 갖췄다.

현재 C&그룹은 C&상선, C&중공업, C&우방, C&우방랜드, 진도에프렌드 등 5개 상장사를 두고 있고 전체 계열사는 30여곳에 이른다. 임 회장은 국내 2천500여명을 포함해 총 6천500여명이며 지난해 총 매출은 1조8천억원이었다.

환율 1500원대 상승

10년 8개월만에 ... 코스피 33P ↓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8개월 만에 1,500원대로 상승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8.00원 급등한 1,51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증가 기준으로 1,500원대 상승한 것은 1998년 3월13일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시 급락, 외국인 주식 판매도,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소식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가가 급락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

일보다 33.59포인트(3.35%) 내린 970.14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5.62포인트(1.94%) 내린 284.50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 하락에는 C&그룹이 C&중공업의 워크아웃 추진설을 부인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는 C&그룹이 워크아웃설을 부인하면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살아난 탓에 C&중공업 (-5.26%), C&상선(-6.25%) 등 계열사 종목의 낙폭이 커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혈값 매각 의혹 벗어 재매각 탄력 정부 상대 손해 소송 여부 관심도

■ 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죄 판결

2003년 외환은행 혈값매각 의혹이 24일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서 일단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도 범된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상태에서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한 법적 불투명성이 모두 해소됐다.

◇혈값매각 법적논란서 '해방' = 은행은 혈값매각 의혹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가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한 상태에서 론스타는 법적 부담 없이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다시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시작해 같은 해 3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분계약을 체결했지만 혈값매각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등으로 매각지금이 미뤄지자 11월 계약을 파기했다.

◇주가 급락 - 조기 매각 난방 =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락한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원배자들의 돈줄이 말라 향후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외환은행의 주가는 21일 현재 5천 530원으로 지난 9월9일의 1만4천400

원에 비해 8천870원(61.6%) 급락했다. 론스타가 HSBC와 체결했던 매각 가격 1만7천725원에 비해서는 3분의 1수준이다.

HSBC가 1만2천원대로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론스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을 고려하면 1만원 이하로 가격을 낮춰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외환은행 인수 후보들이 자금난과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도 외환은행 재매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 상대 손해소송 여부 관심 =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혈값매각 재판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 현대아산 대북사업 존폐 기로

남북간 경색관계 심화 현대家 숙원사업 접나

금강산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내달 1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24일 정부 및 북측에 따르면 북측이 남측인원의 엄격한 통제제한을 위해 개성관광을 허용치 않기로 하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이어오던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현정은 회장 대에서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현대그룹 '대북사업의 역사' =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의 상징적인 존재다. 지난 1998년 크루즈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성사됨에 따라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1999년 설립된 현대그룹 산하 현대아산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에 맞게 대북 관광에 주력하는 민간기업이다.

현대아산은 2000년 8월 금강산·개성특구 지정 및 인프라 사업권을 북측과 합의하며 북측과 사업파트너로 성장했으며 2002년 9월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착공하기도 했다.

2002년 11월에 금강산, 개성 특구법이 채택되면서 현대아산은 이들 지역에서 관광 및 공단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3년 6월에 개성공업지구 착공, 2003년 8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시됐다.

2003년 10월에는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이 완공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했으며 2004년 6월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준공,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2005년 8월 개성관광 시범관광

에 이어 2007년 12월 분관공 실시로 전성기를 맞았다.

◇'고난의 연속' - 대북사업 멈추나 = 현대그룹은 지난 7월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측 초병에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자 일시적인 상황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풀릴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과 달리 남북 당국간 경색관계가 심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중단이 4개월째 접어들었으며 그나마 대북 관광의 맥이 이어오던 개성관광까지 내달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개성공단 부지 조성도 1단계에 이어 2단계에 접어들어 하지만 1단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압박으로 위축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현대아산의 사업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 한명이 북측 관광지를 찾더라도 대북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시아버지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남편인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인데다 대북사업이라는 사명감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개성공단 위축 또한 지속될 경우 적자누적으로 현대아산의 경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물이 최고

농협중앙회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24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개최한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토익건설	회장님 수행운전기사 경력직 채용	고졸/경력2년	2000~2200	11/25	062-604-1336
미래에셋생명본사	핀드&번예 금융전문상담원/150만보장/월평균450만	고졸/경력무관	4000~5000	11/26	02-2052-1260
이넷이스트	홍보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6	062-236-3195
프리머스에이치알주식회사	광주/파견지원 관리 및 도급사업장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1/26	02-2028-7285
누리원	매입, 입출고, 소량물MD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7	062-523-9092
케이티파워텍	광주 주재 사무직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1/27	02-859-626
에이스포장자재	정규직 생산직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8	062-251-7545
한국전력변호사	광주지점 한국전력변호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62-521-2244
리리코스 상무점	전산입력 및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10-2374-0446
화인코리아	해외(중국, 생산공무-전기), 연구개발, 총무(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1-330-4523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 T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12/02	062-360-5201
시스게이트	서버/네트워크/DBMS/보안서버 운영 및 관리(경력)	초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12/03	070-7015-2325
백임정공	머신인턴 및 밀링기공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03	062-955-5890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

수업계 감산 바람

현대차 주말 특근 없애 생산량 조절

현대차가 수요감소로 인한 생산량 조절차원에서 주말 특근을 중단해 취업계의 감산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쌍용차·GM대우·르노삼성이 각각 유급 휴업, 공장 가동 중단, 희망퇴직 검토 등 감산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세계 5위 메이커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북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4분기 생산량을 1만5천대 줄이기로 했을 뿐 최근까지도 본격적인 감산 및 인력조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마저도 울산 2·4공장에서 주말 특근을 중단함에 따라 전세계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불황이 국내 1위 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요가 줄어 생산량 조절차원에서 주말 특근을 중단했지만 주중 정규시간 근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감산이나 특근 중단계획은 없고, 특히 국내 공장의 경우 특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